

# 올 광주지역 경매시장 '후끈'

## 2337건 총낙찰가 3654억 역대 최고치 전남 아파트 낙찰가율 92.8% 큰폭 상승

올해 광주지역 경매시장의 총 낙찰가가 3654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지역은 전반적인 불황 속에 아파트 낙찰률만 나홀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광주지역에서 진행된 부동산은 총 6772건으로, 이 중 2337건이 낙찰돼 낙찰률 34.6%를 기록했다. 한 달 평균 500여 건의 부동산 경매가 진행됨 점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7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낙찰률은 아파트가 43.2%에서 50.7%로 크게 올랐고, 상업시설도 18.0%에서 22.8%로 상승해 전체적으로 지난해 32.5%보다 2.1%포인트 올랐다. 총낙찰가 역시 지난해보다 472억원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3600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낙찰가가 늘어나고, 지난 2월 복구 용병동 하미시네마 건물이 160억원에 낙찰되면서 총낙찰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평균응찰자수도 4.1명에서 4.3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아파트의 경우 물건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감하면서 낙찰률은 50%까지 치솟았다. 일반 시장에서

물건들이 소진돼 경매시장까지 넘어 오는 아파트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낙찰가율 역시 지난해 80.2%에서 90.4%로 증가하면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평균응찰자수도 6.5명에서 6.6명으로 상승했다. 아파트 낙찰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남구 봉선동 무등파크 85㎡로 감정이 9700만원인데 1억2000만원에 낙찰, 124%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경매시장은 진행 물건수가 지난해 4만3104건에서 올해 2만5672건으로 40%나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1만1260건에서 912건으로, 지난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의 경우 금융위기 여파로 통째로 아파트가 거의 매달 진행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한 달 평균 아파트 진행 물건수가 100건 안팎에 그쳤다.

전남지역 물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도 지난해 2만3011건에서 1만8299건으로 줄어 전체 물건수가 대폭 감소했다.

올 한해 전남에서 경매가 진행된 부동산은 2만4811건으로, 이 중 9120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6.8%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34.4%에서 36.8%로 상승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물건수가 크게 줄면서 낙찰률이 30.1%에서 44.0%로 크게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62.1%에서 64.1%로 올랐다. 상업시설과 토지는 지난해보다 하락했지만 아파트의 경우 74.7%에서 92.8%로 큰 폭 상승해 전체 낙찰가율은 증가했다. 아파트는 물건수가 급감하면서 총낙찰가도 지난해 1494억에서 243억으로 줄어들었다. 평균응찰자는 4명에서 5.3명으로 늘어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완지구 의료시설 용지 1만914㎡ 수의계약 판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7일 광주 수완지구 내 종합의료시설용지 1필지를 선착순 수의계약방식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공급 면적은 1만914㎡이며, 가격은 82억9464만원(3.3㎡당 215만2000원)이다. 2년 무이자 할부에 토지리턴제가 적용돼 주변 경기 상황과 의료 수요 등을 살펴본 뒤 사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종합병원 부속 용도로 연면적의 5분의 1 범위에서 장례식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판매센터(031-738-7375~6)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3차 관계인집회 가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남양건설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남양건설 채권자들은 27일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관사 선재성) 주재로 열린 3차 관계인 집회에서 담보권자 100%, 주채권자 69%, 보증채권자 72.5%의 동의로, 남양건설 측의 회생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남양건설은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계획안에 맞춰 최장 10년간 채무를 변제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남양건설은 충남 천안 두정

지구의 아파트 건립사업 과정에서 비롯된 자금난이 심화되자 지난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남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9244억원, 매출액 8463억원으로, 건설업 도급 순위 전국 35위, 전남 2위 규모의 중견건설업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잘나가는 삼성전자 美 디지털TV 점유율 5년 연속 1위 눈앞에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TV 시장점유율 5년 연속 1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시장조사기관 NPD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디지털TV 시장에서 올 1~11월 누계기준으로 36.2%(금액기준)와 24.9%(수량기준)의 점유율을 차지해 5년 연속 1위를 향해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특히 금액기준 점유율에서 2008년 33.4%, 2009년 35.4%, 2010년(1~11월 누계) 36.2%로, 3년 연속 30%대의 점유율을 기록, 질적인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했다.

또 삼성전자는 올 1~11월 미국 시장에서 디지털TV뿐 아니라 LCD TV·평판TV·LED TV·3D TV·IPTV 시장에서도 금액·수량 모두 1위를 차지하며 6관왕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1월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1'에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TV를 선보이면서 TV 시장의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필뉴스



“스키 용품 싸게 사세요” 2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6층 스포츠 매장에서는 스키 및 스노우보드 등 관련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백화점은 스키용품 20~30% 저렴하게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 ‘성실 납세제’ 70개 기업 확대 시행

## 국세청 내달부터 ... 광주·전남북 5곳 포함

국세청이 성실 납세자는 세금에 신청하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시범운영 해온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국세청은 27일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도입해 작년 11월부터 광주·전남북 5곳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을 실시한 결과 성과가 드러나고 경제단체 등의 요청으로 내년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체결을 신청했으며 협약이행을 보장할 일정한 자격 요건 심사와 지역·업종별 분포, 가용 종사인력 등을 감안, 이번에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의 세원분석국장이 70개 법인 대표와 협약서(협약기간 3년)에 서명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국

내 60개, 외국계 10개이며 상장기업 31개, 비상장기업 39개로 비상장기업이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51개, 판매업 8개, 서비스업 4개, 금융업 3개, 기타 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3개, 경기·인천·강원 21개, 대전·충남북 6개, 광주·전남북 5개, 대구·경북 5개, 부산·경남 10개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수평적성실납세제도 = 국세청과 법인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체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세금분제에 대한 투명성과 성실납세를 할 수 있도록 서약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다.

###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 퇴임

국세행정 발전에 29여년 동안 헌신해온 임성균(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9일 명예퇴임한다.

광주출신인 임성균 국세청장은 행정 24회로 재경부 기획관리실 혁신담당관 등 주로 재경부에서 세제관련 업무를 담당했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주타이완국대사관 재정경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이후 2007년 국

세청에 들어와 개인납세국장과 감사관을 역임하면서 재정 관련 전문가로 평가를 받았다. 그는 국세청의 본연 모습인 징세 행정기관의 면모를 되찾기 위해 재임기간 납세자를 위한 세정과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해 왔다.

특히 고향인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특구 조성 등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영여조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기여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22.19 (-7.41)
코스닥지수	496.68 (-2.95)
금리 (국고채 3년)	3.35% (+0.07)
원·달러 환율	1,149.00원 (-1.8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생산 노력”

#### 김대겸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장

“안전한 운영으로 신뢰성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원자력본부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30일 취임을 앞두고 있는 김대겸(56)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신입 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전기 생산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생활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한양대 원자력공학과를 졸업해 197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했다. 발전처 발전운영실장, 영광원자력 제3발전소장 등을 역임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 “근로자 생명·건강 보호 최우선”

#### 김재호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장

“고객 중심의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 광주·전남지역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 서겠습니다.”

지난 27일 취임한 김재호(57) 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충남 예산 출신으로 1998년 공단에 입사해 안전보건정책연구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전기술국장, 운영지원국장, 대구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년 동안 확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